

bgm:옛친구에게 (여행스케치)

대본

1.씬

S#.1 영민쌤 집 (오전/안)

수진 **엄마**:수진아 수진아 **강수진!!!!** 일어나야지!! [tv소리] (소리가 작아졌다가 커진다)

수진:(식은땀을 흘리며 혁 소리를 내며 일어나 손을 떨며 주변을 둘러보고 약을 찾아 먹는다.)

수진 **엄마**: (수진이방 문을 벌컥열며)수진아!! 준비다했니??

수진:(웃을 다 입을 꿈의 일은 없다는 듯 평화롭게)네 가요~~

[땡동~~~]

은경: 수진아 학교가자!

수진:(가방을 손에 들고 급하게 문을 열며 나오면서 엄마에게)다녀오겠습니다!

은경: 야 왜케 늦게 나왔어. 빨리 가자. 선아랑 채경이는 벌써 학교 도착했다.

수진: (시간을 확인하며)야 그래? 이 배신자들. 야 겁나 늦었어 뛰어!!!!!!

2.씬

S#.2 교실 (오전/안) 토

수진:(학교로 등교해서 교실문을 연다.뛰어온걸 나타내기 위해 힘들어함) 도착!

은경: 야 널부터 좀 빨리 나와라.(장난식으로)

수진: 아 미안 미안 ㅎㅎ

채경: 왔냐? 지각쟁이들아~~

선아: 왜케 늦었어~

담임쌤: 자자, 애들아 자리에 앉자. 조례 시작한다. 오늘은 놀랍게도 단축수업이다. (아이들 환호) 종례시간에 성적표도 나간다 (아이들 탄식) 자자 다음시간 준비하도록 과학시간

선아: 야 시간표 뭐야?

은경: (시간표를 보며) 과학

채경: 아 왜 1교시 부터 과학이야

수진: 아 몰라몰라 난 강 잘거야

수학 쌤: (들어오심) 애들아 수업 시작하자. 은경아 저번수업 어디까지 했지?

은경: 34쪽이요

수학 쌤: 역시 은경이 고맙다(그 다음 35쪽 설명 불라블라)

은경: (자는 수진이를 깨우며) 야 일어나 벌써 종례 시간이야 어젯밤에 뭐했냐?? 무슨 1교시부터 학교 끝날때까지 자

수진: 아 나 또 엄마가 `잔소리 해서 새벽까지 공부하다 잤어;; 학교에서라도 잠 좀 자자..

3.씬

S#.3 교실 (오후/안) 토

담임쌤:(칠판 탁탁 치며) 야 야 다들 앉아 앉아!!

(애들 호다닥 앉음) 자 선생님이 뭘 가져 왔을까~?

반 아이들:(찡그린 표정과 탄식소리) 아~~~~!!!!!! 설마

설마~~~~~안돼요~~~~~

담임 쌤: (책상을 치며) 조용 조용!!!!!!!!!!!!!! 그래 성적표를 주겠다. 그럼 이번 부터 앞으로!
(순서대로 나온다.)[우루루] 채경이 이번에 많이 올랐네 잘했다~.

채경: 감사합니다!

담임 쌤: 선아야 이번에 학교에서 열심히 듣더니 점수가 많이 올랐네~

선아: 감사합니다~

쌤: 다음 은경이! 우리 은경이는 얼굴도 이쁘고 지난번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우리반을 은경이가 살리네. 수고한 은경이에게 다들 박수박수!!!

(선아랑 채경이가 오~~~ 역시 김은경!!!!!!!!!!!!!!)

(은경이 들어간후 수진이가 아무말 없이 시무룩하게 나온다) 수진이가 이번에 밤을
새면서까지 공부를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성적표를 보며) 음...그래! 노력으로는
수진이가 1등감이야!!

수진:(시무룩하게) 감사합니다.....

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고 다음 시험날이 있으니까 수진이처럼 모두 노력해서
은경이만큼 좋은 점수 받도록!! 이상 (선생님이 교실을 나간다)

아이들: (웅성웅성)

수진:(아무말 없이 성적표를 보고 있다.)

은경:(수진이에게 다가가며) 괜찮아? 그래도 저번보단 5점이나 올랐네!

수진: 어,..,.. 괜찮지!! 성적이 뭐 별거라고... (기분 안좋은거 티냄)

은경: 나랑 같이 공부할래? 내가 1:1 과외 해줄게!

수진: 에이 괜찮아 친구사이에 과외는 무슨...

선아: 야 김은경 니 이번에도 1등이냐? 아 부럽다 나랑 임채경은 시험 겁나 망했음;;;;;
기분도 별로고 맛있는거나 먹으러 가자.

채경: 떡볶이 ~?

수진: 그래! 그러면 나 원래 은경이랑 우리집 가기로 했는데 우리집 가서 시켜 먹을래??

선아,채경,은경:(알아서 좋음을 표시)

수진: (엄마가 전화음)

수진 엄마: (엄격한 목소리로) 오늘 성적표 나오는 날이잖아. 당연히 잘봤겠지? 우리 딸은
엄마 실망시키지 않는거 알아~?

수진: 네.....

수진 엄마: 오늘 수업한 거 하나하나 필기 다 했지? 선생님들이 하는 말 한글자라도 놓치면
안된다.

수진: 당연하죠...일단 친구들 가니까 떡볶이 시켜주세요. 끊을게요(전화를 끊고)

은경: 야 너네 어머니셔?

수진: 어;;; 또 그소리야 하 나 필기 안했는데;;;

은경: 야 니가 잔게 한두번이냐 내 필기공책 보여드려

수진: 그래..고마워..

4.썩

S#.4-1영민쌤네 집 거실 (오후/안) 목

(도어락 소리)

수진: 엄마~ 저희 왔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떡볶이 냄새 썩다~~

수진 엄마: 그래그래~ 어머~~은경아~~~ 왔니~~?? 방에 올라가있어~

친구들: 뵙~(익숙한듯 올라감)

수진엄마: (당연한 듯 가방을 열어서 성적표를 봄)

수진: 엄마,떡볶이 가져가서 먹어도 되요?

수진엄마:(무시하고) 성적이 이게 뭐니?

수진: 엄마 친구들도 왔는데 이 애긴 나중에 해요.;;;
수진 엄마: 너 지금 친구가 문제야? 니 성적을 봐. 은경이는 몇점 이야?
수진:..... 98점이요....
수진 엄마: (한숨을 내쉬고) 내가 너 때문에 들인 돈이 얼마데, 성적을 이렇게 밖에 못 가져와? (친구들이 와서 조용히 말함)
친구들: 수진아 언제와??
수진 엄마: (화난 목소리를 꼭 누르며) 애들아 수진이 통해서 떡볶이 보낼게.
친구들: (눈치 챈)감사합니다..
수진 엄마: 너 조금 있다가 보자.

S.#4-2

수진: 네... (방으로 올라감)
친구들: 괜찮아....? 또 성적때문에 뭐라하신거야...?
수진: 한두번이나.. 괜찮아.. 아 분위기 봐 됐어. 애들아 애들아 !!떡볶이 뿔어서 탕탕해지겠다!!!!빨리 먹자!!!!(애써 밝은척 다 같이 논다)
친구들 and 수진:음하하하하아따 재밌다 꿀맛띠~~~~~(문틈새로 비추는 엄마눈빛)
채경:야야.....(더듬거리며) 이제 가야할거같아....(친구들에게 눈치)
선아:아 나도 학원,, (우르르르)(눈치보면서 나감)
은경:어....ㄴ..나도... 갈께...안녕..내일 학교에서 보자
수진 엄마: 어머 애들아 벌써 가니? 더 놀다가지~ 조심해서 가~~(눈웃음) (은경이를 잡아서 뒤로 싹 뺀다)은경아 이모랑 수진이랑 잠시 이야기좀 할까?
은경: (당황하며)빙 ㅎㅎ
수진: (속삭이듯) 엄마 은경이는 왜 불러요.....!!

S.#4-3

수진 엄마: (무시) (부엌으로 감)그래 은경아 과일 먹을래~?
은경: 빙 감사합니다! 이모 뭐 도와드릴까요?
수진 엄마: 허허 애도 참 착하기도 해라~ 괜찮아 저기 앉아있어~

S.#4-4

은경:빙 (수진이와 함께 쇼파에 가서 앉는다)
수진 엄마: (과일을 깎아서 식탁에 놓으며) 그래 은경아 이번에도 시험을 잘 봤다고~?
은경: 아뇨 ㅎㅎㅎㅎ 그렇게 잘 한 것도 아닌데요 뭘.. 두개나 틀렸어요ㅜㅜ 아직 갈길이 멀죠 ㅜㅜ감사합니다 ㅎㅎ,,,
수진엄마: 어머~ 우리 은경이는 못하는게 뭘까~~ 수학 경시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다던데~~ 어우 은경이 엄마 너무 부럽당~~ 은경이 이모 딸 할래??
은경: ㅎㅎ 칭찬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수진이기도 진짜 잘하죠!!!!
수진 엄마: 우리 수진이?! 어휴 말도 마~ 수진이는 애가 하는동마는동 보는 입장에서 답답하다 답답해!! 우리 은경이 반만이라도 닳으면 얼마나 좋으련지 어휴..
수진:(지친다는 표정으로 3초 침묵후 한숨) 화장실 좀..... (화장실을 가지 않고 기둥에서 듣고있음)
수진 엄마: (속삭이며) 은경아! 혹시 우리 수진이 학교에서 어떠니?
은경: 수진이요? 에이 걱정안하셔도 되요~ 혼자 어렵히 잘하는데요.. 가끔 피곤할때 조는 것 빼면요
수진 엄마: 우리 수진이가 존다고....?(화난듯)
은경: (당황하며) 아.. 아니요 아니에요 수진이 매일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수진엄마: 아니... 그것보다 은경아 너 혹시 수진이 과외할 생각 없니? 이모가 은경이 이쁘기도 하고 딸 같아서 용돈 좀..주고 싶어서 그래~ 공부도 되고 얼마나 좋니?

은경: 음..... 생각 좀 해볼게요....

수진엄마: 그래그래~ 잘 생각해보고 !! 결정나면 말해줘~ (용돈을 손에 쥐어주며) 이거는 우리 은경이 이빠서 주는 선.물 ^.^

수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러나 속상함) 둘이 뭘 얘기를 이렇게 해?? 은경아 나랑 잠시 바람 좀 쐬러 갈래?

은경:(눈치보며) 그러자!

수진: (엄마 눈치보며) 저 잠시 은경이랑 나갔다가 올께요!

수진엄마: (수진에게 경고 주듯이) 늦지 않게 와~ 은경이는 조심히 가구!

은경: 안녕히계세요 다음에 뵈요!!

수진엄마: 그래그래~~

5-1.씬

S#5 집 앞

수진: 근데 너 이렇게 집에 늦게 가도 돼?

은경: 조금 더 있다가 가지 뭐. 너 근데 괜찮아?

수진: 아니.. 뭐 그냥 괜찮아. 우리 지금 할것도 없는데 거기나 갈까?

은경: 그래! 좋아! 저번처럼 노래도 들으면서 갠성이나 타자~~

수진: 아 완전 꿀~~!!!

5-2.씬

S#5-2 학교 운동장

은경: 진짜 오랜만에 온다 그치?

수진: 그니까. 우리 중학교 졸업식때 오고 안왔나?

은경: 맞아 맞아 ㅋㅋ 완전 추억돋는다..

수진: (누울 장소를 가리키며) 그럼 저기에 누워서 우리 맨날 들던 노래 듣자(가서 누움)

은경: (핸드폰으로 '옛친구에게' 노래를 크게 들으며)

둘다 눈 감고 음악감상 and 추억생각

(해지는 하늘 누워서 촬영)

수진, 은경: (동시에) 야

수진: 너가 먼저 이야기해.

은경: 아 아니야 니가 먼저 말해.

수진: 그냥 너부터 말해봐 뭔데???

은경: 야 그때 기억나냐? 우리 어렸을때 떡볶이집에서 아줌마 몰래 떡볶이 훔쳐먹었던 거??

수진: 아 당연히 기억나지~ 그걸 어떻게 잊냐!! 이 노래도 그 떡볶이 집에서 틀어줘서 많이 들었던 노래잖아! (시간을 보며) 헐 그나저나 지금 시간 봐! 가자

5-3.씬

S#5-3 해질녘 영민쌤 집 앞

은경: 야 근데 아까 운동장에서 할 말 뭐였냐??

수진: 아.. 아니 그게 아까 나 화장실 갔을때 우리 엄마랑 안어색했어??? 뭘 얘기 하고 있었어??

은경: (당황하며) 아.. 아니 아니야!! 그냥 별 말 안했어 우리 엄마한테 안부전해 달라는 얘기 했어!

수진: (걸음을 멈추며) 아.. 그거 말고는?

은경: 없어! 너 되게 빨리 나왔잖아~

수진: (화를 꼭 참으며) 야 너네 엄마 걱정하시겠다 이제 그만 가

은경: 아 어... 그래야겠다. 내일 보자!!

6.씬

S#.6 영민쌤네 집 (오전/안) 목

(그 다음날 아침)

수진:(일어나서 진정제를 팔팔 쏟아 먹음)

수진**엄마**: 일어나, 일어나 너 그러다 지각 한다?

수진:(주섬주섬 옷입고 나감)다녀오겠습니다.....

은경: 어? 오늘은 빨리 나왔네?

채경: 야 표정 왜 이래....? 어제 우리 가고나서 분위기 괜찮았어?

선아: 근데.... 은경이는 왜 남았던거야?

은경: 아니.... 우리 오래된 친구니까 이모가 나랑 오랜만에 이야기하고 싶으셨나봐.

선아: 아... ..

수진:.....(눈치봄)야 지각하겠다. 빨리 가자. 나 지각하면 엄마한테 죽어.

(학교로 뛰어간다)

7.씬

S#.7 교실 (오전/안) (편집: 익준쌤 디딤영상 틀고 선아랑 채경이 찍으며 카톡하는걸 찍음) 토 익준쌤이 설명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특내용이 나온다 에이틴 (1화 참고)

카톡 내용

선아: 야

채경: ㅇㅇ?

선아: 아니 근데 솔직히 나 기분 좀 그래;;

채경:: 뭐가

선아: 아니 아까 아침에 김은경이 완전 무슨 자기가 뭐 된거같이 이야기하잖아.

채경: ?? 김은경이 뭐라했더라

선아: 아니 왜 김은경만 따로 불렀냐고 물어봤을때 오래된 친구라서 그럴다니 뭐라니 그랬잖아

채경: 아 맞다 야 그니까 우리도 횡수로 따지면 몇년째 같은 친구데 재네는 맨날 자기들끼리만 다님.

선아: ㅇㅈ 아니 봐주는 것도 한두번이지 몇년째 이게 뭐냐?

채경: ㅋㅋ 근데 수진이 어머니도 우리 보다 은경이를 더 좋아시는 듯?

선아: ㅇㅇ 우리 이름도 잘 모르실걸

채경: ㅋㅋㅋㅋ에이 설마 이름도 기억 못하겠어?

선아: 아 몰라 ;;;; 강 생각하면 겁나 뻑침 같이 다니기도 싫음

(학교 종이 땡땡땡)

8.씬

S#.8 학교 복도 (오전/안) 토

쉬는시간

수진이가 교실에서 나온다. 그 뒤를 따라나오는 은경이.

은경: 수진아! 오늘 나랑 과외할래?

수진: (싸늘하게)갑자기 왜?

은경: 아니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장난치듯 자랑하며) 내가 또 한 공부 하잖아~

수진:(화내며) 이제 와서 뭘 소리야

채경, 선아: (말똥말똥, 띠용,저게 무슨 소리인가 라는 표정, 일단 지켜본다)

은경: 아니 같이 공부하면 좋잖아(팔을 잡으며)

수진:야 적당히 해 내가 모르는 줄 알아? (팔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간다)

은경: (깜짝놀라 얼어있다가 나중에 수진을 뒤따라 간다)

채경,선아: (자기들끼리 속삭이며 은경을 따라간다)야 뭐야 원일이야 일단 따라가보자

9. 씬

S#.9 라운지 (오전/안)

수진엄마:어!수진아! 이번에 서울대 들어간 춘식이 알지?그 엄마한테 엄청 빌어서 구한 귀한 필기노트야~~ 엄마가 가는길에 들고왔어.(뿌듯)

수진: (노트 들고 보고있다 화나서 던지며) 제발 적당히 좀 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방송실로 간다 (소리지르며)

수진엄마: 아니 수진아 왜그래~! (필기노트를 다시 주워 수진을 따라간다)

10.씬

S#.11 배움센터(오전/안)

수진: (필기노트를 던짐. 방송실 마이크가 켜짐 아무도 모르는 채로 계속 말함) 엄마. 도대체 나한테 왜그래? 왜 엄마 만족을 내 성적으로 하는건데 어? 나도 답답해 숨좀 쉬자 제발... (해탈)

수진엄마: (당황하며) 아니...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한거니???? 너 그런말 어디서 배웠어? 성적은 다 너 좋으라고....

수진: 좋으라고? 하... 좋으라고 한거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좋아보여? 이제 그만 좀 하자 제발,,,,!

수진엄마:강수진 내가 너한테 시켰다면 뭘 어떻게 시켰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니? 다른 엄마들은 나보다 더 해 엄살피우지마.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너한테 투자한거 알면서 항상 성적을 그따구로 받아와?

수진: 맨날 성적성적성적!!!!!! 내가 엄마때문에 어떤 짓 까지 한지 알기는해? 엄마.... 엄마 딸 수면제랑 진정제 먹어 그거라도 안먹으면 미칠 것 같아서!!!

수진엄마: 수면제랑 진정제? 그게 뭐 별거라고 일등하려면 그정도는 누구나 다 해 은경을 봐 수면제랑 진정제도 안먹는데 얼마나 잘하니?

수진: 엄마 나 엄마 딸이야. 나도 사람이라고. 왜 자꾸 나랑 은경을 비교하는건데!!!!!! 공부 못하는 딸이라서 내가 창피해?(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나 엄마랑 은경이랑 이야기하는거 다 들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 공부시키는거는 그렇다 쳐, 근데 왜 내 친구까지 건드려? 사실 은경이랑도 친해지기 싫었어!! 엄마가 친해지라니까... 그래야만 하니까...(눈물을 훔치며)(방송실 밖으로 나가 은경 선아 채경을 마주친다)

11.씬

S#.11 배움센터 앞

(은경이가 방송실에서 나가는 수진을 붙잡고 싸운다.)

은경: (나가는 수진의 팔을 붙잡으며) 수진아.. 너 방금 그 말 진심이야..? 너 나랑 친구 하기 싫었어?

수진: 어 그래 나 처음부터 너랑 친해지기 싫었어. 너랑 친해진것도 다 우리 엄마 때문이야.

은경:(당황한듯한 표정) 그.. 그럼,, 너 .. 단 한번도 나랑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수진:(당황) 어 단 한번도 없어 오히려 짜증났다고!! 니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잘난척해대는 모습이 얼마나 꼴 보기 싫었는지 알아?

은경: (슬슬 격해지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너를 진심으로 좋아했어,,! 근데 넌...

수진: 좋아했다고??? 거짓말하지마!!!! 매번 넌 그런식이야. 지금 애들이 다 보고있다고 또 착한 척 하는거지?

은경: 야 강수진!!! 제발 정신차려..!! 너 언제까지 니 망상 속에 빠져 살래? 받아주는 것도 한두번이지 너 그렇게 살지마. 넌 평생 니네 엄마 꼭두각시 인형 노릇만 할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쌤:자 거기거기 서있는애들 다 들어가!!!!
(은경 수진 엄마)저,,,수진이 어머니 이만 진정하시고 수진이도 진정하고 가보는게 어떨까,,?

수진: (은경이를 째려보며 뛰쳐나간다.)

은경: (은경이도 화가 난듯 아무말 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사라지면 되는거지....?

<<화면 암전>>

수진이와 함께 한 갤러리 추억보다 딥슬립

12.씬

S#.12 학교 교실 안

(수진이가 책상에 엎드려서 떠난 은경이의 자리를 바라보며 편지를 끄적인다.)

담임선생님:자~ 수업하자 (국어 설명해주세요 선생님)

아이들:시끌시끌

(수업 듣는데도 엎드려서 은경이에게 편지적고있다)무

담임선생님: 강수진! 너 자꾸 수업시간에 즐래?? 정신 똑바로 안차려?너 대학 안갈거야?!?!?

수진: 죄송합니다.... (자세를 바로 하며)

13.씬

S.#13 교실 안

(은경이의 자리를 비추며)

수진 나레이션: 어느덧 은경이가 학교에 안온지 2주가 지났다..

사실 은경이를 처음부터 좋아한건 아니다. 나보다 잘났다는 생각에 오히려 질투가 났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맞지만 하루 이틀 그렇게 오년을 보내다보니 은경이는 나에게 없어서 안될 존재가 되었다.

(교실 밖으로 나간다)

14.씬

S#.14 방송실

방송실로 올라가서 방송을 킨다)

수진 방송: 아아 빼이이 (적어놓은 편지 낭독중)

(같은시간 은경이 걸어가다가 멈추는 발 촬영 하이앵글 이어폰 빼는장면)

수진:하,,뭐하고있는거야 이게,,

(가방매고 학교밖으로 달려나가다가 점점 멈추고 그 옆의 은경이촬영)

(서로 눈물 흐르다가 웃음터짐)
(플랏으로 돌이 비춤)
(끝)

엔딩 크레딧
쿠키영상 졸업사진